

9월 두 번째 주 생활물가, 희비 엇갈려

전주지역, 품목별 상반된 흐름 보여

전주시 완산구를 포함한 전북 지역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9월 두 번째 주 들어 품목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생활필수품인 쌀, 삼겹살 등 돼지고기, 사과 등의 가격이 각기 다른 속도로 변동하며 소비자들의 지갑 부담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의 대표 품목인 쌀은 이번 주 평균 가격이 3만6,600원으로 집계돼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약 287원 상승했다. 전년 동기 평균 3만8,827원과 비교하면 약 2,700원 상승한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쌀을 취급하는 대형마트에서는 4만7,900원까지 치솟아 눈길을 끌었다.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의 신동진 쌀 가격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쏠린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급 쌀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반면 농협하나로클럽과 남부시장에서는 3만원 내외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 가격 대비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할인점을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쌀 가격은 계절별 수확량과 공급 상황,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꾸준히 차별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몇 년간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비자 가격과 도매 가격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축산물 가운데 소비자가 선호하는 삼겹살은 이번 주 평균 가격이 1만9,615~2만1,400원으로, 1개월 전 대비

소폭 상승했다. 특히 전년 동기 평균 1만5,927원과 비교하면 4,000원 이상 상승한 셈으로, 소비자 부담이 다소 가중되는 모양새다.

대형마트에서는 2만3,000원대의 고급 브랜드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세이브존과 모래내시장 등 일부 할인점에서는 1만3,680~1만5,000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은 ‘선택과 집중’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할인점을 중심으로 삼겹살을 구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한 정육업체 관계자는 “최근 돼지고기 가격은 국제 곡물가와 사료비 상승, 계절적 수요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변동폭이 크다”며 “특히 성수기와 맞물린 시기에는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대표 품목인 등태는 이번 주 평균 4,214~4,233원으로 지난달 대비

약간 상승, 전년 4,421원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다. 특히 지역 내 판매점별로 격차가 매우 커, 알뜰 소비자에게는 비교 쇼핑의 기회가 되고 있다.

마트 점주들에서는 5,98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반면, 농협하나로클럽과 세이브존에서는 1,980~1,990원으로 저렴하게 판매됐다. 모래내시장과 남부시장 등 전통시장 역시 5,000원대에 거래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다.

전문가들은 “등태와 같은 수산물은 공급량과 어획량 계절적 요인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가진다”며 “가격 편차가 큰 만큼 소비자들이 꼼꼼히 비교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일류에서는 사과가 가장 두드러진 변동을 보였다. 이번 주 평균 가격은 3,912~4,003원으로, 1개월 전 평균 4,575원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전년 3,386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 수준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생활안전 · 지역경제 안정 기대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 강화... 행안부 · 전기안전공사 협약

전국의 착한가격업소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 수준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 11,000여 개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절연저항 측정, 누전차단기·배선·개폐기 등 주요 전기설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불량 차감기는 개선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안전공사는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요령 콘서트 안전 사용법 등 실생활 중심 교육도 병행해 안전한 운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하영 사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서민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착한가격업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한편,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생활안전 보장과 지역경제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김제시 일자리 박람회서 하반기 농 · 축협 채용설명회 개최

전북농협이 지역 청년과 구직자들의 취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전북농협은 지난 11일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김제시 일자리 박람회(이하 박람회)에서 하반기 농 · 축협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구인 · 구직자 간 매칭을 지원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타지역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1:1 취업 컨설팅, 면접 컨설팅, 상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전북농협 부스에는 농 · 축협 입사에 관심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몰려 전북농협의 역할과 하반기 동시채용 계획, 실무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농심전심(農心天心)’ 운동 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존경과 국민 행복을 지향하는 전북농협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시민단체,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취소에 “전북 발전에 날벼락”

추진연합, 정부에 신속한 대응 강력 촉구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전북 도민 사회에 충격과 참담함이 번지고 있다.

전북 도민과 209개 경제 · 사회 · 문화 · 체육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이하 추진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추진연합은 “전북은 광역 시 · 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제공항이 없는 지역”이라며 “그동안 국제행사 유치와 기업 투자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아왔고, 그 결과 도내 14개 시 · 군 대부분

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전락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정치권, 그리고 도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의 각종 프로젝트에 도전해왔다”며 “그 결실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수소 · 탄소 산업 중심지 도약,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 등 빛나는 성과를 일궈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공항이 없는 현실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은커녕 전북의 미래 투자에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정태 수석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전북 발전에 날벼락이 마른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규정하며, “새만금국제공항은 공항이 전무한 전북의 구조적 한계를 타개하고 지역 발전을 완성할 마지막 핵심 퍼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정부가 법적 · 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정비해 새만금국제공항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연합은 끝으로 “하늘같이 막힌 전북은 더 이상 머뭇거리기 여유가 없다”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책무를 다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오상근 기자

도 마이크로바이옴 경제동물 혁신 사업단, 국제축산박람회서 ‘전북관’ 운영

전북의 미래 축산기술이 대구에서 열린 대형 국제 무대에 등장했다.

(재)전북테크노파크 산하 마이크로바이옴 경제동물 혁신 사업단(MPID 사업단)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대구 EXCO에서 열린 2025 한국 국제축산박람회에 참가해 ‘전북관’을 운영, 지역이 추진 중인 첨단 축산기술과 연구 성과를 국내외 관계자에게 대대적으로 선보였다.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농업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전문 전시회로, 1999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축산의 고 유가치와 디지털 이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축산 기자제, 시설, 위생 · 가공처리 기술을 비롯해 사료, 동물약품, 종축 · 생명공학, 농장경영 · HACCP 시스템 등 축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최신 기술과 제품이 전시됐다.

아울러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 각종 학술 세미나, 시상식과 기념식, 소비자 관측행사까지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어우러져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장이 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번 박람회에서 그동안 사업단이 수행해온 연구 성과와 우수 사례를 집중 소개했다. 특히 △경제동물 건강증진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신기술 △온실가스 저감형 친환경 축산 솔루션 △농가 소득 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혁신제제 등이 전북관을 통해 발표돼 국내외 바이어와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오상근 기자

천문학적 자산 안정 관리 돌입

국민연금, 국내 자산 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규모의 투자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국내 자산 수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540조원이 넘는 국내 자산이 보다 철저하고 안정적인 관리 체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자금운용본부는 지난 12일, 6월 수탁기관 선정 공고 후 제1차 접수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탁은행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신한은행 △3순위 하나은행을 각각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자산 사무관리사에는 신한펀드파트너스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연금은 수탁업무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투자자산을 안정적으로 보관 · 관리하기 위해 자산군별로 역할을 나눠 수탁은행이 보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정된 은행들은 순위에 따라 주식 · 채권 · 대체투자 가운데 담당할 자산

을 순차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2025년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자산은 주식 180조 원, 채권 320조 원, 대체투자 25조 원에 달한다.

사무관리사로 선정된 신한펀드파트너스는 국민연금 국내 자산의 위탁운용과 관련해 순자산까지 산출, 운용행위 점검 등 정밀한 사무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자금운용본부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세부 기술 협상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8년 12월 30일까지 3년이며, 성과 평가에 따라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자산 보관 · 관리 업무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